부산 중구종합사회복지관 ‘다온한끼’ 개소



중구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8월 26일, 누구나 따뜻한 한 끼를 누릴 수 있는 ‘다온한끼’ 무료 라면집을 개소했습니다. ‘다온한끼’는 지역사회 내 사회적 고립 가구를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입니다. ‘다온(多溫)’은 ‘모든 좋은 일이 다 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온한끼’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라면 자동조리기 2대, 정수기, 전자레인지, 살균소독기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하루 평균 50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중구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로, 복지관 주변에도 많은 관광객이 오가는 만큼 ‘다온한끼’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한국 라면과 컵밥을 준비해 이용자가 자신의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해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향사랑기금 2천만원으로 내부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의 운영비는 후원자들의 후원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도직 활동 수녀로는 관장인 쟌마리아 수녀와 사회복지사이자 다온 한끼 담당인 마리아 가인 수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리아 가인 수녀는 후원회 조직과 라면집 운영 및 안정화를 위해 앞으로도 수고를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온한끼’가 끼니를 거르는 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고,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이웃과 다시 연결되는 따뜻한 공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